



미 증시, 델타 변이, 유가 급락 등으로 부진

미국 증시 리뷰

9 일(월) 미국 3 대 증시는 고용 호조를 통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은 유효했으나, 델타 변이 발 유가 급락(-2.2%), 11 일(수) 소비자물가 발표 대기 심리, 일부 연준 위원들의 조기 테이퍼링 발언 등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(다우 -0.3%, S&P500 -0.1%, 나스닥 +0.2%). 업종별로는 헬스케어(+0.4%), 필수소비재(+0.3%), 금융(+0.3%) 등이 강세, 에너지(-1.5%), 부동산(-0.4%), 산업재(-0.4%) 등이 약세.

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의하면, 지난 8 일 일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5 명 발생하는 등 확진자 수는 크지 않지만 중국 내에서도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한 일부 지역간 이동 통제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. 이 같은 중국발 수요 감소 둔화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국제 유가 약세를 유발한 모습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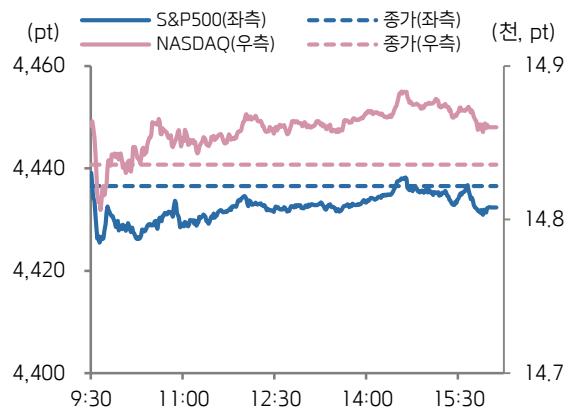
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고용시장 위축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, 인플레이션도 테이퍼링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언급.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미국 경제가 고용과 물가 등 연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 경로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.

미국 증시 평가

델타 변이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, 고용 위축 불안 등이 재차 확대되고 있으나, 실질적으로 경제에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. 미국의 경우,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추가실업급여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고용시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던 근로자들 사이에도 가처분소득 유지를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 니즈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. 또한 6 월 채용공고가 1,007 만건으로 전월(948 만건) 및 예상치(928 만건)를 상회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처럼, 기업도 구인난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 시 추가적인 고용 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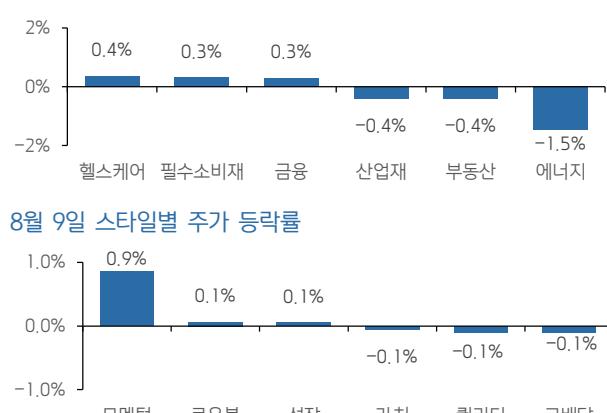
물론 지수 레벨 부담감이 있는 만큼, 당분간은 델타 변이, 인플레이션, 조기 테이퍼링 등 기존의 불안 요인들이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. 그럼에도 경기 편디멘털 및 기업 실적은 훼손되지 않았으며, 현재 의회에서 협상중인 인프라 투자 등 추가 모멘텀은 남아있기 때문에, 연말까지 지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전망.

S&P500&NASDAQ 일중 차트(8월 9일)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8월 9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 check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10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0.33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31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147.7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3 원 상승/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1. 중국발 수요 둔화 우려로 인한 국내 경기 민감주들 주가 부진 여부
2. 반도체 소재, 장비, 부품주들의 투자 및 M&A 기대감에 따른 주가 변화 가능성
3. 2거래일 연속 급등한 카카오뱅크의 추가 강세 여부

한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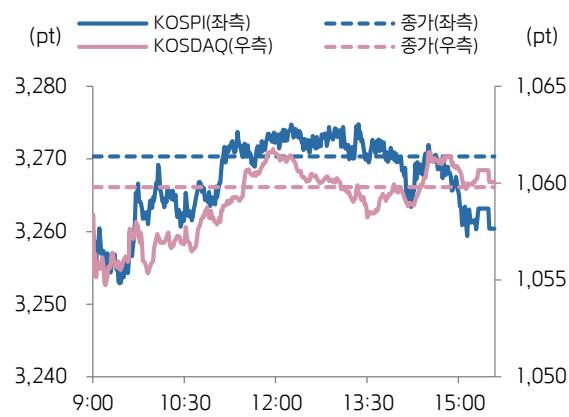
9일(월) 코스피는 미국 비농업부문 호조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도, 중국 생산자 물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계심리 속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실현성 순매도로 하락 마감. 카카오뱅크(+12.5%) 는 MSCI 신흥국지수 조기 편입 확정에 따른 글로벌 패시브 수급 유입 기대감 등으로 장중 20% 넘는 폭등세를 보였으나, 장 중반 이후 상승폭을 반납했다는 점이 장 후반 지수 하락세에 기여(코스피 -0.30%, 코스닥 +0.02%).

업종별로는 은행(+9.9%), 금융(+1.2%), 의료정밀(+0.8%) 등이 강세, 의약품(-2.0%), 기계(-1.8%), 건설(-1.7%) 등이 약세.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,064 억원, 7,475 억원 순매도, 개인이 9,505 억원 순매수를 기록.

한국 증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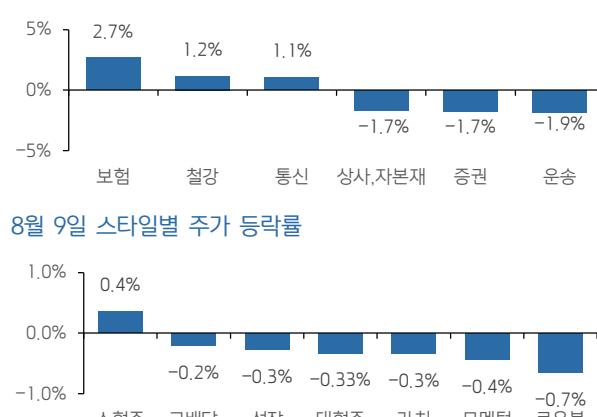
한국 증시는 델타 변이 발 중국 수요 둔화 우려, 인플레이션 경계심리 등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숨고르기 장세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. 전거래일 장 후반 상승폭을 대거 반납한 카카오뱅크의 주가 흐름을 감안 시, 금일에는 수급 쏠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. 이 같은 쏠림 현상 해소로 인해 빠져나가는 시중 자금이 금일에는 특정 주도 섹터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, 매크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. 다만 대기업의 투자 및 M&A 기대감이 재차 부각됨에 따라 반도체 밸류체인 등 관련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섹터 및 종목간 차별화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(8월 9일)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8월 9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